

성인도래기의 대학-직장 이행과정에서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

김 지 근 허 경 민 허 다 연 이 기 학†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도래기 청년들이 대학에서 직장으로의 이행과정에서 어떤 주관적 경험을 하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전국 대학교 4학년 이상 재학생 및 휴학생 15명을 성별, 전공, 지역 등의 특성이 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이론적 표본추출을 실시하여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자료는 Van Kaam(1969)이 제안한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의미 있는 진술문을 추출하고, 이를 공통된 속성으로 묶는 범주화 작업을 통해 부주제, 주제, 범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1125개의 의미 있는 진술문이 추출되었으며, 61개의 부주제, 19개의 주제, 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범주는 ‘이행과업을 인식하고 헤쳐나감’, ‘이행과정 중 부정적 경험으로 인한 내적 고통’, ‘사회지원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충족되지 못함’, ‘이행과업에의 미성숙한 태도가 나타남’, ‘이행을 준비하며 기존 자원과 여건상에 새로운 어려움이 발생함’ 순의 빈도로 나타났다. 즉, 대학에서 직장으로의 이행 경험 속에는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대처 행동, 부정적 정서와 태도의 심화, 사회구조와 시스템으로 인한 어려움,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며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 등의 경험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의와 제언 및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성인도래기, 대학-직장 이행, 현상학적 연구

* 본 연구는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2A01025544).

† 교신저자 : 이기학,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Tel : 02-2123-2445, E-mail : khlee2445@yonsei.ac.kr

후기 산업화 사회로 진입하며 사회는 더욱 복잡해지고 경쟁은 심화되어 개인이 경쟁력을 갖추고 안정적인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이를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Côté, 2000). 이에 미국의 심리학자 Arnett(2000)은 약 18세에서 25세까지의 과도기적 시점을 뜻하는 성인도래기(Emerging Adulthood)의 개념을 학계에 최초로 제안하였다. 기존의 인간발달 단계 이론(Erikson, 1968)에서는 이 시기를 따로 구분하지 않았지만, Arnett(2007)은 성인으로의 전환이 20대 후반 또는 그 이후로 지연되는 현상이 산업화된 사회의 보편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독립적인 인간발달시기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에서도 고학력과 일자리 안착으로 인해 초혼 연령이 늦춰지는 등, 성인기로의 이행이 지연되는 현상이 여러 지표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청년의 문제를 이해를 위해서는 성인도래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나, 국내에서는 아직 이 발달시기에 대한 학문적, 사회적 담론이 부족한 실정이다(주경필, 2015). 특히 20대는 사회적 책임과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성인기로의 진입을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일자리에 안착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김은정, 2014; Arnett, 2014). 따라서 이 시기의 직장으로의 이행과정에 대한 이해는 성인도래기에 대한 이해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Arnett(2007)은 전통 사회와 달리 후기 산업사회에서 성인기로의 정착이 지연되는 중요한 이유로 고등 교육의 보편화와 학업 종료 시기의 지연을 들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도 1990년대 이후 고등교육개혁과 맞물려 고등교육의 기회가 획기적으로 확대되며 대학진학률이 가파르게 상승하였다(김두환, 2017). 이로

인해 고학력자들이 노동시장에 과잉 공급되는 현상이 나타나며, 대학생들이 취업을 하지 못해 전과, 편입, 졸업 유예 등 학업을 지속적으로 연장하는 현상이 보편화 되고 있다(김은정, 2014). 반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선택하는 20대의 취업률은 고졸 취업확대 정책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고졸취업자 일자리의 질 또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필남, 2014). 즉, 한국 사회에서 직장으로의 이행이 지연되는 20대 성인도래기의 과도기적 문제는 고졸 구직자 보다 대졸 구직자에게 보다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성인으로의 이행이 지연되는 성인도래기 현상을 잘 반영해주는 대상으로 대학생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연주의적 패러다임에 근거한 질적연구를 통해 성인도래기로 대표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대학-직장 이행과정에서의 개인 내·외적 경험을 있는 그대로 심층적으로 이해해보고자 한다.

20대에는 학업을 마치고 직업을 가져서 성인으로 기능하기 위한 출발점을 통과해야 하며, 이후 결혼과 출산을 통해 사회재생산의 기능을 담당하며 안정적인 성인기로 진입하여야 한다(Arnett, 2007). 즉, 청소년에서 성인기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 중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은 전환의 시발점이 되는 매우 중요한 과업인 것이다. 그러나 2016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대학 진학률이 1위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취업률은 OECD 국가 평균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제협력개발기구, 2016).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20대의 실업률이 다른 연령집단과 비교했을 때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

어(통계청, 2017), 한국 사회의 교육 수준 대비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청년층 실업 문제가 심각화 되면서, 정부는 청년 일자리 예산 확대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고용노동부, 2015), 대학은 이력서 작성, 면접기술 연습, 직업 정보 제공 등 취업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들 3명 중 2명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한국청년연합, 2015),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 교육은 취업에 그다지 유효한 성과를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혜원, 2013; 박성재, 반정호, 2006; 황여정, 백병부, 2008). 즉, 대학-직장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 정책적, 경제적, 구조적 접근은 당면한 문제의 해결과 성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는 대학-직장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성인도래기의 청년들이 이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실제적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작업을 무엇보다 선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에서 직장으로서의 이행은 취업과 실업을 넘어선 다양한 범위의 도전들을 포함하고 있다(Perrone & Vickers, 2003). 이 과정에서 대학생들은 학생이라는 역할에 대한 상실감, 직업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Monteiro, Santos, & Gonçalves, 2015; Wood, 2004). 나아가 대학-직장 이행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 가족, 사회, 문화 등 맥락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이 시기에 직면하는 다양한 도전과 위기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 한국 사회의 특수성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직장 이행 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는 개인마다 지나는 고유성에 대한 가정과 더불어 한국 사회의 공통된 맥락과 현상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학-직장 이행에 관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청년 실업의 실태분석에 관한 통계 연구(권혜자, 김두순, 이주현, 2008; 금재호, 2007; 박종태, 조현수, 2009; 채구묵, 2004)나 취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외적 요인을 밝히는 연구(남기곤, 2009; 이아라, 이주영, 김계현, 2013; 이현성, 2010; 조영하, 김병찬, 김봉준, 2008) 등 양적연구가 주가 되어왔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취업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자격증 취득여부, 전공, 학점 등 외적 조건에 한해서만 분석하여 심리적, 발달적 변인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결과 변인 역시 취업 성공 여부에 대한 독립 변인의 유의성을 판단하는데 초점을 두어 연구되고 있어 취업으로 이어지는 개인 내적인 역동과 복잡한 현상들에 대한 담론은 형성되기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러한 양적 연구는 현상을 외부자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개인 삶의 발달적-맥락적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즉, 양적 연구 결과는 대학-직장 이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상세한 과정적 정보나 실제 당사자가 체험하는 생생한 정보들이 생략된 채, 연구 설계와 통계분석을 통한 계량적 연관성을 밝히는데 머무르게 된다는 한계에 직면하는 것이다(박승민, 2012). Ellis와 Bochner(2000)는 “특정 대상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가장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눈과 목소리를 통해서 그들을 볼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의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인도래기의 대학-직장 이행과정에서의 경험을 실제 청년의 관점에서 질적으로 탐색하는 것은 청년 실업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나, 이를 심층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복잡한 인간 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질적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대학생의 취업에 대한 질적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또한 양적 연구에 비해서는 매우 소수이다. 대학-직장 이행을 주제로 이루어진 질적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진로과정에 대한 이론개발을 목적으로 행해진 근거이론연구(최진영, 이광호; 2012), 취업 준비를 하는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취업 스트레스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박미진, 김진희, 정민선, 2009), 취업 준비 과정에 대한 대학생들의 공유된 경험과 의미를 이야기적 텍스트로 구성한 내러티브 연구(남미자, 2013) 등이 있다. 이러한 질적연구들은 모두 대학생들의 살아있는 경험을 연구하고 있으며, 취업 준비 과정에 대한 대학생들의 사고, 지각, 느낌을 명백히 표현하는데 가치를 두고 있다. 또한 질적연구 결과들에서는 대학-직장 이행이 객관적인 관찰이나 통계적인 수치만으로는 규명될 수 없는 다양한 내적 체험을 담고 있으며, 이는 실제 경험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독특한 체험임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직장 이행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대상자의 경험에 근거한 질적 연구가 보다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대학-직장 이행을 주제로 한 기존의 질적 연구들은 주로 이 시기의 부정적인 경험

또는 어려움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박미진 등, 2009; 신현규, 장재윤, 2003). 또한 취업준비생들의 경험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인지적 요인 등의 심리적 구성개념에 초점을 두으로써(박미진 등, 2009; 이훈구, 김인경, 박윤창, 2000), 사회구조적 요소들의 영향력은 괄호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 시기의 경험이 부정적 반응만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여(Hartley, 1980), 이행과정에서 각종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 차원에 관계없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이 시기에는 단순히 개인 심리적 차원뿐만 아니라 기회구조라는 경제적, 사회적 차원이 함께 상호작용하여 경험을 구성하기 때문에(이아라 등, 2013) 이러한 복잡한 측면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들의 제한된 시각에서 벗어나 현상을 있는 그대로 살펴 보려는 시도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질적연구방법론 중 현상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대학-직장 이행과정에서 청년들의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현상학 연구는 실제적 삶의 세계에 관심을 두고, 여러 개인들이 현상을 경험하면서 공통적으로 갖게 된 체험의 의미를 기술하는데 초점을 둔다(조홍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2010).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 대상자들의 삶과 지각의 장에 들어가 살아있는 경험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대학-직장 이행과정에서 대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의 본질과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기존의 이론적 틀에서 도외시 되어온 삶의 실제적 과정을 밝히는 과정에서 이론적 방법이 발견하지 못했

던 의미들의 출현과 이해까지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현재 대학생들이 대학-직장 이행과정에서 경험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이들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대학-직장 이행의 경험을 처리하고 있는지, 이들의 어려움을 완화시켜주고 보호해주는 요인은 무엇인지 등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

현상학에서는 인간이 ‘설명되어야 하는 존재’이기보다는 ‘이해되어야 하는 존재’로 본다(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4). 이러한 이해의 과정은 경험에 대한 기술(description)과 해석(interpretation)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현상 그 자체에 대한 기술 보다는 현상에 대한 일반화된 해석에 보다 초점을 두고자 Van Kaam(1969)이 제안한 심리현상학적 방법론(Psychophenomenological Method: PPM)의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심리현상학적 방법론(PPM)은 한 가지 경험에 대해서도 다른 개개인의 경험이 같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경험의 본질을 찾는 것이 목적으로 한다. 즉, 현상에서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하고 분석한 내용을 주제(theme)와 범주(category)로 조직하고, 이를 연구자의 언어로 기술한다는 측면에서 일반화된 해석에 좀 더 무게중심이 있는 방법이다. 특히 Van Kaam은 질적 자료를 분석하여 일반화된 해석을 하는데 있어 더욱 정확한 측정을 원하는 과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과학적이고 엄밀한 방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심리현상학적 방법론(PPM)에는 질적 자료에서 현상으로 나타난 경험의 빈도를 양적으로 세는 속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방법론적 특성은 경험의 빈도수를 해석에 반영함으로써 경

험의 우선순위 또는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 방법의 적용을 통해 대학-직장 이행에 대한 살아있는 경험들의 본질을 일반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의 빈도수를 통해 현상의 중요도나 심각도 등에 대한 해석까지도 함께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성인도래기의 청년들은 앞으로 성인으로서 사회의 버팀목이 될 중요한 재원이다. 따라서 대학에서 첫 취업에 이르는 이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들이 원활하게 성인기로 이행하도록 돕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특히 청년들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심층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현상학적 연구는 그 동안 진로 이론이나 양적 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이 시기의 발달적-맥락적 복잡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청년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도전과 위기에 대해서 현상학적으로 파악하는 본 연구는 기존에 외부자적 관점에서 결정되어 왔던 정책들이 지니는 한계를 보완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나아가 연구 결과는 적용적인 대학-직장 이행 과정에 요구되는 개인의 심리사회적 자원과 사회 환경적 지원을 규명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이후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의 영역과 방법을 구체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우리나라 성인도래기 청년들은 대학-직장 이행과 관련하여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이다.

방 법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 연구의 대상자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으로 연구 목적에 맞게 대학-직장 이행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교 4학년 이상의 20대 남녀 재학생 및 휴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한 연구 참여자 수는 최소 5명에서 25명의 개인을 면담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Polkinghorne, 1989), 15명이 연구적으로 합당한 명수이면서 연구자가 현실적으로 수집 가능한 인원이라고 판단되어 총 15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 모집은 접속 가능한 대학의 온라인 게시판 및 취업 관련 인터넷 카페 게시판을 통해 모집 공고를 내고, 자발적인 신청 절차를 통해 연구에 참여할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연구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모집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는 온라인 연구 참여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연구 참가자의 권리와 의무, 연구소개, 연구 신청 및 참가 유의사항 등을 읽도록 하였고, 연구 참가를 희망할 경우, 성별, 나이, 학년, 대학, 전공, 졸업예정시기, 졸업 후 취업계획 유무, 연락처 등의 기본 정보를 신청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후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연구 현상들에 대해 충분하고 풍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성별, 전공, 지역 등의 특성을 가진 대상자가 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표

표 1. 연구 참여자 특성

번호	학과/학년	졸업예정시기	나이/성별	대소소재지	진로희망분야
1	환경공학과/4	2017.08	27/남	서울	국제공무원→금융공기업
2	회계경영학과/5	2017.02	27/남	경기	마케팅, 영업
3	의류환경학과/4	2017.02	24/여	서울	상품기획, MD
4	외식영양학과/4	2017.02	24/여	서울	마케팅, 영업관리, 영양사
5	경영학과/4	2017.02	25/남	충청	광고마케팅→영업관리, MD
6	신소재공학과/5	2017.02	26/남	서울	생산관리→무역
7	국제학과/4	2017.02	26/여	경상	심리상담→사회복지재단
8	국제무역학과/4	2017.08	25/여	경상	외국계, 공기업
9	경제학과/4	2017.02	26/남	전라	승무원, 물류, 유통
10	행정학과/4	2017.02	25/여	전라	학원강사
11	고고학과/4	2017.02	28/남	충남	학예사→영업관리
12	국사학과/5	2017.02	26/여	경기	홍보, 영업관리, 학예연구직
13	불어불문학과/4	2017.02	24/여	강원	국제회의기획자→회계
14	기계공학과/5	2017.02	26/남	경기	연구개발
15	화학과/4	2017.08	25/여	서울	통역, 외교

주. → 는 취업 준비 기간 내 진로변경을 의미함

본추출을 실시하였으며, 심층면담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추가 연구 대상자를 선정해나갔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직접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연구 대상자 선정 사실을 알렸으며, 연구 참가를 수락한 학생들이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은 심층면담과 추가면담 각각 연구절차에 따라 연구 참가비가 제공되었다. 최종 선정된 연구 참여자의 자세한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 절차 및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을 위한 심층면담은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다. 심층면담은 진로 상담심리학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생 대상 상담을 수행하고 있는 박사수료자 1인, 석사학위자 1인, 석사과정생 1인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면담 장소는 연구 참여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사설 스튜디오를 대여하여 진행하였으며, 면담 시간은 모든 참여자에게 1회 1시간 40분~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면담을 시작하기 전 참여자에게 윤리규정에 따라 연구 목적, 중도 참여 포기 가능, 비밀 보장, 참여 보상 등을 설명문에 기반을 두어 안내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자발적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면담에 사용한 주요 질문은 ‘진로 및 취업 준비 현황(예: “졸업 후 진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대학 졸업 후의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경험(예: “대학 졸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대학 졸업 후의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도전과 위기(예: “취업을 준비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졸업 후의 자신의 삶에 대한 기대(예: “대학 졸업 후 예상되는

변화가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등의 내용이였다. 면담 질문의 구성 및 흐름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내용 전문가인 박사학위자 1인에게 자문을 구하여 최종 완성하였다. 또한 면담 중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나 단어에 대해서는 “지금 하신 ~에 대한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좀 더 자세히 그때의 상황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등의 추가 질문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모든 면담 내용은 녹음 되었으며, 동시에 연구자가 면담 상황과 연구 참여자의 비언어적 표현과 특징을 기록하였다. 면담이 끝난 후 녹음된 내용은 참여자가 표현한 언어 그대로 축어록으로 작성되었는데, 축어록 작성은 연구자 중 해당 면담을 직접 진행하지 않은 연구자가 실시하여 자료 수집 과정 중 모든 내용이 서로 실시간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면담을 진행한 연구자가 축어록 전사내용을 재검토 하였으며, 축어록 작성 과정에서 녹음이 정확히 되지 않은 부분 등 내용에 있어 재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참가자에게 전화로 개별 연락하여 추가로 내용을 확인한 후, 축어록에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축어록 작업이 완료된 후, 전체 축어록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논의를 통해 추가 면담 질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총 10명의 참여자가 추가 면담에 대한 자발적 참여에 동의하여 전화 및 서면을 통해 추가 면담을 진행하였다. 추가 면담 내용은 다시 축어록으로 작성되었으며, 자료 분석에는 대면 심층 면담과 전화 및 서면 추가 면담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였다.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Van Kaam(1969)이 제안한 현상

학적 분석방법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첫째로 참여자 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정리한 축어록을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에 초점을 두며 읽은 뒤 다시 반복하여 읽으며 의미 있는 진술문에 밑줄을 그었다. 둘째, 밑줄 그은 의미 있는 진술문들을 참여자 별로 정리하여 취합한 뒤 전체적으로 훑으며 반복되는 진술문이나 동일한 내용의 진술문은 삭제하였다. 이 과정에서 하나의 진술문에는 한 가지 주제만 포함되도록 진술문을 분리하여 정리하였다. 셋째, 참여자들의 의미 있는 진술문들을 하나로 취합한 뒤 관련 있는 내용들끼리 묶어 일차적인 범주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때 연구자 간 논의와 합의를 통해 각 진술들이 공통의 속성으로 묶이도록 노력하였다. 넷째, 일차적으로 범주화한 진술문들을 토대로 이들의 공통적 속성이 잘 드러나도록 부주제를 정하였다. 다섯째, 부주제들을 정리한 뒤 비슷한 속성을 지닌 부주제끼리 묶어 잠재적 구조적 요소인 주제로 분류하였다. 여섯째, 분류한 잠재적 구조적 요소들을 학문적 언어로 정의하였다. 이때 정의한 주제들이 참여자들의 진술문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일곱째, 최종적으로 범주화된 자료에서 주제들이 언급된 빈도를 수치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분류한 범주와 빈도를 바탕으로 참여자들이 경험한 현상에 대해 기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과정에서는 질적연구 전문가인 교수 1인에게 질적연구방법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받았으며, 진로상담 분야의 내용 전문가인 교수 1인에게 범주화 내용 및 기술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자료 분석 결과를 연구 참여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발송하였으며, 면담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의견을 묻고, 추가되는 내용은 연구자 간 논의를 통해 최종 연구결과에 반영하였다.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질적연구방법론 수강, 질적연구 스터디 모임 참여를 통해 질적연구 패러다임을 충분히 숙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나아가 현상을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자료를 의미 있게 분석할 수 있도록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문헌, 기사, 관련 사이트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결 과

대학에서 직장으로의 이행과정에 대한 경험을 Van Kaam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총 1125개의 의미 있는 진술이 도출되었고, 이는 61개의 부주제, 19개의 주제, 최종적으로 5개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각 범주와 주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부주제별로 참여자들의 경험을 실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의미 있는 진술문(significant statement)을 제시하였다. 범주화 결과와 빈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범주 1. 이행과업을 인식하고 헤쳐나감

대다수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직장 이행과정을 헤쳐 나가기 위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내·외적 자원을 활용하며, 사회가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일부 참여자는 이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품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내·외적으로 성장하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

표 2. 자료분석결과

범주	주제	부주제
이행과업을 인식하고 헤쳐나감 (397, 35.3%)	이행과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함 (226, 20.1%)	다방면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취업 전략을 수립함(66, 5.9%)
		일 경험, 지원 경험 등을 바탕으로 취업 전략을 세워감(50, 4.4%)
		진로 및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45, 4.0%)
		긍정적 생각과 활동을 통해 이행과정의 어려움을 극복해나감(35, 3.1%)
	내·외적 자원을 활용함 (77, 6.8%)	소신껏 나의 길을 찾아감(30, 2.7%)
		주변인으로부터 정서적 지지가 도움이 됨(28, 2.5%)
		전공, 성격 등 자신이 지닌 특성이 취업 과정에 도움이 됨(24, 2.1%)
		주변 사람으로부터 정보와 도움을 받음(13, 1.2%)
	스펙 쌓기에 열중함 (29, 2.6%)	부모와 기관의 경제적 지원이 도움이 됨(12, 1.1%)
		어학을 포함하여 필수적으로 여겨지는 스펙을 준비함(16, 1.4%)
희망과 기대감을 가짐 (36, 3.2%)	직무와 관련된 스펙을 준비함(13, 1.2%)	
	취업 이후 삶에 대해 기대감을 가짐(19, 1.7%)	
	서류 합격 등의 성취 경험이 희망이 됨(9, 0.8%)	
이행과정에서 성장함 (29, 2.6%)	현재를 가능성의 시기로 인식함(8, 0.7%)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직무 역량이 쌓이는 경험을 함(15, 1.3%)	
이행과정 중 부정적 경험으로 인한 내적 고통 (283, 25.2%)	여러 가지 부정적 정서를 경험 (150, 13.3%)	취업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내적으로 성장함(14, 1.2%)
		취업 실패로 인해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을 경험(49, 4.4%)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한 상황으로 인해 힘들(38, 3.4%)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위축되고 불안함(27, 2.4%)
		취업 어려움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큼(16, 1.4%)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내적 갈등 (53, 4.7%)	나에 대한 기대가 부담되고 힘들(12, 1.1%)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정서를 통제하는 것이 어려움(8, 0.7%)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취업 목표를 타협함(19, 1.7%)
	미래를 부정적으로 바라봄 (44, 3.9%)	사회 외적 가치와 개인 내적 가치가 충돌함(16, 1.4%)
		취업을 위해서 자신을 포장해야 하는 현실을 경험함(14, 1.2%)
홀로 버텨나감 (36, 3.2%)	취업을 위한 노력들에서 의미 찾기 어려움(4, 0.4%)	
	대학 졸업 후 사회인으로서의 생활에 기대감 낮음(27, 2.4%)	
	직업 세계 적응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17, 1.5%)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과 나누지 않음(14, 1.2%)
		취업은 혼자 해내야 한다고 여김(12, 1.1%)
		친구, 선배, 멘토 등의 자원이 없어 혼자 취업을 준비함(10, 0.9%)

표 2. 자료분석결과

(계속)

범주	주제	부주제
사회지원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충족되지 못함 (211, 18.8%)	채용 시스템 문제로 인한 어려움 (117, 10.4%)	명확한 채용 기준을 알 수 없어 어려움(42, 3.7%)
		취업 경쟁에 있어 차별 요소를 경험함(40, 3.6%)
		기업이 제공하는 채용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낌(26, 2.3%)
		기업이 너무 많은 역량을 요구한다고 느낌(9, 0.8%)
	사회구조적 장벽을 경험함 (62, 5.5%)	취업 시장 자체가 어렵다고 여감(33, 2.9%)
		기성세대가 현대대의 어려움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낌(13, 1.2%)
		대학 교육만으로는 취업 준비 어려움(12, 1.1%)
		일 경험을 통해 실제 직무 역량을 쌓지는 못함(4, 0.4%)
	보여주기식 취업 지원 서비스 (32, 2.8%)	취업 지원 서비스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얻지 못함(26, 2.3%)
		취업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움(6, 0.5%)
이행과업에의 미성숙한 태도가 나타남 (154, 13.7%)	이행 과정에 깊이 몰입되지 않음 (58, 5.2%)	어디든 일단 취업 성공이 목표임(16, 1.4%)
		일단 해 놓으면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스펙을 준비함(16, 1.4%)
		취업에 대한 절박함 없음(10, 0.9%)
		별 다른 목적 없이 그냥 진로를 선택하거나 포기함(9, 0.8%)
	취업 준비가 부족함 (56, 5.0%)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확실히 결정하지 못함(7, 0.6%)
		취업 준비가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함(40, 3.6%)
		취업 준비 부족으로 인해 졸업이 늦춰짐(9, 0.8%)
		졸업이 다가오자 뒤늦게 취업 준비를 시작함(7, 0.6%)
	스트레스에 소극적 방법으로 대처함 (40, 3.6%)	취업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현실 도피함(17, 1.5%)
		남과 비교하며 안도감을 느낌(12, 1.1%)
이행을 준비하며 기존 자원과 여건상에 새로운 어려움이 발생함 (80, 7.1%)	경제적인 면에서 스트레스 생김 (36, 3.2%)	불합격에 대한 심리적 충격에 익숙해짐(6, 0.5%)
		실패 상황에 대해 자기 합리화를 통해 위안을 얻음(5, 0.4%)
		취업 준비에 드는 비용이 부담됨(15, 1.3%)
	관계에서 어려움 생김 (25, 2.2%)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이 눈치 보임(12, 1.1%)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심적인 압박 느낌(9, 0.8%)
		자원(시간, 돈 등)의 한계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부담되고 회피하게 됨(13, 1.2%)
		취업 성패에 따라 관계가 예민해지거나 멀어짐(12, 1.1%)
	동시에 해야 하는 일이 많아짐 (12, 1.1%)	취업 성패에 따라 관계가 예민해지거나 멀어짐(12, 1.1%)
		대학생활과 취업준비를 병행하는 게 힘들(8, 0.7%)
	건강상의 문제 발생함 (7, 0.6%)	동시에 여러 군데 지원을 준비하는 것이 버거움(4, 0.4%)
취업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 탈모, 소화불량 등의 문제 생김(7, 0.6%)		

주. ()안의 숫자는 해당 부주제, 주제, 범주에 대해 의미 있는 진술이 나타난 빈도와 총 빈도수에 기반한 %임

다. 특히 이행이 필요한 시기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에의 의지를 가지고 헤쳐 나가는 반응의 진술문이 현저히 높은 빈도로 나타남으로써 한국 대학생들이 대학-직장 이행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주제 1. 이행과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함

연구 참여자들은 직장으로서의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노력이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고,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등 진로 발달적 측면에 초점을 둔 대처 행동으로 다수 보고 되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직장 이행과정을 헤쳐 나가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스스로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과정에서 학습된 적응 능력은 이후 성인기에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진로발달과업 수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Hettich, 2010).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 사장님한테도 상담을 받았고. 학과 교수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서도 상담 받을 수 있거든요. 주말 멘토링에 가서 자소서나 면접 관련 해서 계속 피드백 받고..” (참여자 5)

“인턴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랑 할 수 있는 걸 조금 가지치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 준비하면서도 내가 불안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배짱 지원이 해야 하나요?” (참여자 7)

“정부 쪽에서 취업성공패키지라고 청년 대상 지원해주는 것도 하고, 취업 스터디 같은 것도 하고, 대학교에서 취업 캠프도 하고..” (참여자 2)

“책 같은 거 보면서 마음을 달랬고. 테드 강의들 보면서 달랠 때도 있었고. 명상이나 호흡수련. 운동 하면서..” (참여자 7)

“이제는 나도 성인이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좋은 회사 가야만해, 이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된다.” (참여자 13)

주제 2. 내·외적 자원을 활용함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직장 이행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지지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서적 지지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그 외에 정보적 지지, 경제적 지지 또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었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서도 한국 청년들은 물리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부모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독립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안선영, 김희진, 박현준, 김태영, 2011), 특히 대학-직장 이행과 관련해서는 가족 뿐 만 아니라 사회기관, 친구, 그 외 다양한 주변인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연구 참여자들은 개인마다 지닌 고유한 환경과 특성 속에서 대학-직장 이행과정에 긍정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자원을 스스로 인식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넌 왜 이것도 못하냐, 고 그러면 마음이 좀 힘들 텐데. 그래도 괜찮다고 다음에 또 하면 된다고 말씀해주시니까. 그래도 힘이 나죠. (참여자 6)

“경쟁적인 상황을 좋아해서. 경쟁에서 이겨서 잘해내고 싶고, 그걸 인정해주는 것에 대해 큰 성취감을 느끼고. 격정되고

스트레스 받는다고는 하지만 내면으로는 이 상황을 즐기는 면도 있어요.” (참여자 3)

“학교에서 들었던 수업하고 인턴하면서 직원 분들이 말씀해주신 것들. 그런 정보들에서 제일 크게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참여자 7)

“경제적 지원이 자신감이 되어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당장 인적성 책사는 것도 한권에 몇 만원씩 하고, 면접복장도 사야 되고. 지원 받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없는 것 같아요” (참여자 3)

주제 3. 스펙 쌓기에 열중함

대학-직장 이행과정의 다양한 경험 중 스펙 쌓기에 열중하는 현상은 예상보다는 낮은 빈도로 나타났다. 스펙 쌓기 활동은 크게 두 부류로 보고되었는데, 취업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조건으로의 스펙 쌓기와 직무 관련 역량을 쌓기 위한 노력의 관점으로 나누어졌다. 비록 참여자들은 사회가 직무와 직접 연관되지 않은 어학, 컴퓨터, 대외활동 등을 필수적인 스펙으로 요구하는 현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보였지만, 동시에 스펙 쌓기를 대학-직장 이행과업을 헤쳐 나가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보고하였다.

“토익이 제일 기본. 스펙 쓸 때 토익을 많이 하니까. 다음에 요즘에는 컴퓨터 자격증도 많이 우선시 되니까 모스 자격증 따고, 워드, 컴활..” (참여자 8)

“직무 관련 자격증을 갖춰서 현재 가진 강점을 좀 더 활용할 기회를 만들려고 했어요.” (참여자 9)

주제 4. 희망과 기대를 가짐

현재의 자신이 지닌 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기대는 대학-직장 이행과정을 헤쳐 나가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Arnett(2014)은 이 시기를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possibilities)의 시기라고 설명하였는데, 연구 참여자들을 통해서도 현재 자신의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계획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고 기대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첫 직장은 발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경력을 쌓아서 내가 일을 하는데 좀 더 즐거울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올라가는 계단이 되는 느낌.” (참여자 8)

“서류 합격 됐다는 이야기 듣고 울었어요. 그 동안의 설움과, 누군가에게 인정받았다는 안도감, 이제 내 능력을 누군가 알아봐주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 같아서 그 기쁨이 큰 거 같아요.” (참여자 12)

“지금 하던 대로 계속 꾸준히 준비하면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참여자 9)

주제 5. 이행과정에서 성장함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직장 이행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직무 역량을 쌓는 실무적인 성장을 경험할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심리내적 성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징적인 점은 다른 경험들에 비해 내적 성장은 분명한 표현이나 명확한 확신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표현되는 경향이 있었다.

“(학교에서 나왔던 직무 실습은) 진짜 옆에서 보니까 하나하나 뭘 하는지 알 수 있고, 되게 유익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4)

“분명히 불안하고 확신도 없고 하지만.. 내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인거 같아요. 뭔가 이렇게 해왔다는 것을 정리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인 거 같아요.” (참여자 1)

범주 2. 이행과정 중 부정적 경험으로 인한 내적 고통

두 번째로 높은 빈도로 나타난 경험은 부정적 경험으로 인한 내적 고통이다. 대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직장 이행과정 속에서 현실적 장벽과 실패를 경험하며 깊은 심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취업난이라는 여건 속에서 내적 욕구와 사회적 요구 사이에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을 결국 내 자신이 홀로 헤쳐 나가야 한다는 책임감 속에서 막막함, 외로움, 고독함 또한 경험하고 있었다. 나아가 대학-직장 이행과정 속에서 바라보는 사회인, 직장인으로서의 삶 또한 기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 1. 여러 가지 부정적 정서를 경험

가장 높은 빈도로 보고된 것은 부정적 정서로 인한 어려움이다. 무엇보다 지원 탈락 후 경험하는 정서는 매우 깊은 심적 고통으로 전달되었는데, 주변인들의 합격 소식에 나는 언제쯤 합격할 수 있을지, 가족·친지들에게 어떤 낮으로 설지, 심지어 이 사회에 내가 설 자리가 과연 있을지 등 여러 가지 부정적 정

서들이 생생한 언어로 보고되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에게 이처럼 강렬한 부정적 정서는 지금까지의 삶에서 처음 경험되는 것들이었으며, 이를 어떻게 처리하고 해소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무가치함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다수 보고 되었다.

“자꾸 탈락하니까 내가 너무 무가치한가? 내가 그렇게 인정 못 받고 쓸모없는 인간인가? 이 사회에서 나는 누락되는, 배제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여자 12)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불확실성.. 안개가 바로 앞에 있는 느낌 이에요.” (참여자 1)

“저는 떨어지고 그 친구만 최종까지 붙은 거예요. 축하해주지만 동시에 내 자신과 비교하게 되니까.. 나는 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구나 하는..” (참여자 7)

“취업스트레스가 정말 말로만 들었지 이게 내 일일 거라고는 절대 생각 못했어요, 진짜.” (참여자 12)

“만이다 보니까 동생들이 저를 볼 거 아니예요. 누나가 어떤 이미지로 보일까.. 비리비리한 인간으로 기억되면 어떡하지..” (참여자 10)

“감정기복이 심해지고 상당히 예민해졌어요. 집에서도 심지어 수능 때보다 더 예민한 것 같다는 소리를 몇 번 들기도 했고. 저 자신도 뭔가 성격이 문제가 되어 가는 거 같아요.” (참여자 8)

주제 2. 취업 준비과정에서의 내적 갈등

한국 사회는 고등교육 진학률에 비해 화이트칼라 직업층의 증가는 정체되어 현재 대학

생에게 자신이 일하고 싶은 직종에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지 못하다(김은정, 2014).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직장으로서의 이행을 준비하며 자신의 진로목표나 가치관을 타협하거나 포기해야 하는 경험을 많이 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 자기 소개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거짓 자기로 포장하면서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었다. 즉, 대학생들은 고등교육 졸업자에게 바라는 외부 기대를 따르기 위해 자신을 포장하며 애쓰지만, 결국 원하는 진로로 진출하지 못하는 좌절을 경험하면서 목표를 타협하거나 포기하고, 결국 대학-직장 이행과정에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되는 혼란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일 많이 뽑는 걸로 가자. 굶어 죽을 순 없으니까. 작년엔 다 홍보로 지원했는데, 가망이 아예 없으니까. 남들 다 지원하는 영업, 영업관리로 가자” (참여자 12)

“나는 왜 이걸 쫓고 있는가.. 분명 나는 가치 있는 것을 좋아하는데.. 왜 내가 저 위를 바라보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만들어지는 느낌..” (참여자 1)

“자소서 쓸 때 느낀 건데.. 내 인생은 취업하려고 살아온 인생이 아닌데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모든 경험을 어떻게든 나는 이 기업에 들어오기 위해 이걸 했고..이렇게 쓰는 게.. 취업은 그냥 내 인생의 한 과정일 뿐인데..” (참여자 3)

“그냥 취업하려고 발악하는 그런 시지요. 나를 발전시키는 시간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참여자 6)

주제 3. 미래를 부정적으로 바라봄

미래에 대한 관점은 개인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특히 연구 참여자들이 보고한 부정적 관점의 특징은 미래가 현재보다 더 힘들 것이라는 점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이행해 올 때의 설렘과 로망을 현재 경험과 비교하며, 졸업 후 삶에 대해 매우 현실적인 걱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을 해봤는데 일주일 내내 막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직장인이 되면 진짜 재미없게 살겠다, 그냥 좀 의미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자 4)

“졸업하고 이제 사회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두렵다고 해야 하나.. 사회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가 많이 하잖아요.” (참여자 13)

주제 4. 홀로 버티나감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직장 이행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또래나 가족과 나누길 원치 않아 했으며, 동시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보고하였다. 그 이유로는 대학-직장 이행은 결국 내 삶의 결과이기에 혼자 해내야 한다고 여기는 책임감과 자신이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가 노출됨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타인의 시선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 반면 도움을 원하지만 주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자원이 없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어,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홀로함’의 부담감이

내·외적으로 부여되는 것으로 보였다.

“깊이 이야기해봤자 서로 해결책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다보니까. 얘기만 하면 결국 우울해지잖아요. 그냥 얘기 안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참여자 4)

“주변인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고작해야 자소서 첨삭이나 면접 준비인데.. 결국 취업은 혼자 해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참여자 13)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쪽으로 발전한 사람이나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이는 사람도 없고.. 그게 답답하긴 해요.” (참여자 15)

범주 3. 사회자원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충족되지 못함

대학-직장 이행과정에서 세 번째로 많이 보고된 경험은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대학, 사회가 자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이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공평하고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느끼는 등 구조적이고 환경적인 어려움에 대해 다수의 참여자가 호소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고용시장의 고학력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대학생들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학-직장 이행과정에서 청년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요구를 당당히 주장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로 위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주제 1. 채용 시스템 문제로 인한 어려움

채용 과정에서 기업과 취준생은 갑과 을의 관계처럼 묘사되고 있었다. 특히 기업이 어떤

기준으로 지원자들을 평가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차별적인 구조로 지원자를 평가하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다수 보고되었다. 즉, 채용 시스템 전반이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서 사회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기업이 지원자들에게 마땅히 제공해야 하는 채용 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 또한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전반적인 채용 절차를 경험하며 기업이 요구하는 조건들이 사회초년을 앞둔 이들에게 과하게 느껴진다고 보고하였다.

“지원자의 열정을 본다는데.. 두루뭉술하잖아요. 본인들은 취업준비생들에게 엄청 구체적인걸 바라면서.. 이게 참 불공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자 9)

“서울 경기 쪽에 박람회나 특강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가고 싶어도 수업 때문에 못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지방 애들은 우물 안 개구리처럼 정보를 잘 몰라요.” (참여자 5)

“서류 발표일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계속 기다려야 되고. 또 서류 발표나면 빠른 데는 그 주 주말에 인적성 보러오라 하고. 이러면 준비할 시간도 적고, 그 전까지는 당장 일 이주 뒤의 스케줄도 마음대로 잡아놓을 수 없잖아요.” (참여자 3)

“어학연수를 빈칸으로 넣으면 면접에서 연수 경험이 없으시네요. 인턴경험이 없으시네요. 이러니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거의 경력을 원하는 거잖아요.” (참여자 13)

주제 2. 사회구조적 장벽을 경험함

대학-직장 이행의 어려움은 본격적으로 이행을 준비하고 실행해가면서 점점 더 크게 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을 위한 지원과 불합격을 반복하며 지금까지의 대학교육과 개인의 부단한 노력으로도 극복되지 않는 사회구조적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은 청년들에게 무력감을 안겨주는 경험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 스스로도 취업준비생이 되기 전까지는 실감하지 못했던 이러한 어려움을 다른 세대가 완전히 공감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특히 부모세대인 기성층에게 이해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러한 사회구조적 장벽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인식과도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취업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항상 노력하면은 뭔가 이루어지고 그랬거든요. 노력한 만큼 보상은 받았는데 (이제는) 노력해도 보상받을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참여자 12)

“50대 이상 기성층에서는 취업을 힘들다는 이해에 대한 공감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가치관이 심어져 있는 것 같고.” (참여자 1)

“저희가 전공 배우는 게 약간 실제적인 업무랑 진짜 다른 거 같아요. 가공학, 화학, 생화학 이런걸 배우는데 실제적으로 업무는 진짜 그런 쪽은 하나도 안하거든요.” (참여자 4)

“인턴을 아무리 했다 해도, 인턴한테 중요한 일을 시키지도 않고, 직무를 배웠다기보다 옆에서 회사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보는 정도였으니까.” (참여자 3)

주제 3. 보여주기식 취업 지원 서비스

연구 참여자들은 정부, 대학, 기업 등이 제공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보고 하며, 많은 경우 이러한 서비스가 실정을 모르는 탁상공론식 정책임을 비판하였다. 또한 기관들은 사회적 책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홍보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취업 지원 서비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감하지 못한다는 보고도 있었다.

“실질적으로 취업엔 전혀 도움이 안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마련하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냥 실정을 잘 모르는 정책인거 같아요.” (참여자 12)

“사실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아무리 하고 지원을 한다고 해도 느껴지지도 않는 것은 해봤자 사실.. 아는 사람만 하고 모르는 사람은 있는지도 모르고.” (참여자 9)

범주 4. 이행과업에의 미성숙한 태도가 나타남

일부 참여자들에게서는 대학-직장 이행과업에 필요한 준비가 늦은 상태이거나, 과업에 몰입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등의 미성숙한 태도가 보고되었다. 이는 대체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 본 경험이 부재한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 졸업을 맞이하게 된 경우였으며, 뒤늦은 후회와 함께 졸업을 유예하며 취업을 준비하려는 계획이나 모습을 보고하였다. 또한 문제를 유발하는 상황에 심리적인 거리를 두고 피하려는 대처 방식(Amirkhan, 1990)을 보이는 참여자들에게서는 이행과정에 몰입하

지 못하고 과업을 이루는 태도를 보이거나 이행과정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취업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모습도 나타났다. 나아가 반복되는 불합격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서적 회피 반응이 보고되기도 하였다.

주제 1. 이행 과정에 깊이 몰입되지 않음

일부 참여자들은 대학-직장 이행과업에 관여도가 매우 낮아, 이행 과정 중 ‘자신’은 없는 것처럼 경험을 보고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방향성이 없을뿐더러 성인됨의 의미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졸업이라는 물리적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졸업 후의 상황을 고민해야 하는 등 자신의 현재 과업에 몰입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그냥 취업을 빨리 하고 싶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은 거 같아요. 학생에서 다음 단계로.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남들이 가는 데로 그 과정을 밟고 싶어요. 그냥 그러고 싶은 것 같아요.” (참여자 6)

“대외활동 트렌드 자체가 기자단, 서포터즈 이런 거였어요. 큰 목적의식 없이 그냥 남들 다 그걸로 스펙 쌓고 하니까...” (참여자 6)

“다른 사람보다 내가 절박함이 부족할지도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좀 편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를 한 적도 없고.” (참여자 14)

“솔직히 말하면 경력도 없고 연구실에서 그렇게 한 적도 없어서 넣은 만한 직무가 그것 밖에 없는 거예요.” (참여자 4)

“억지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되나. 공기업이나 외국계 하나만 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직도 집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8)

주제 2. 취업 준비가 부족함

연구 참여자들은 취업 실패의 원인을 취업 준비 부족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실제 대학 생활 동안 진로에 대한 고민의 부재로 인해 대학-직장 이행과정의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이들은 뒤늦게 현실을 깨달았지만 졸업을 미루며 늦춰진 발달 과업을 수행하는 것 외에 뚜렷한 선택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나 같은 애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왜 못 붙지, 가 아니라 이래서 난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 (참여자 4)

“학점이 낮았는데 졸업을 해버리기엔 좀 무서운 게 있었어요. 이 학점으로 졸업을 하면... 그래서 메꿔야지 하는 마음으로 유예를 했던 거죠.”(참여자 6)

“솔직히 3학년 때 까지는 취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안했거든요. 딱 한해 지나고 보니까 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들면서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여자 15)

주제 3. 스트레스에 소극적 방법으로 대처함

연구 참여자들은 실패가 유발하는 부정적인 정서반응을 조절하기 위해 주관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변화시키려는 소극적 대처를 보고하였

다(Lazarus & Folkman, 1984). 특히 스트레스 상황을 외면하고자 술을 마시고 잇는 등의 거리 두기, 타인의 실패를 통해 나의 실패를 최소화하기, 반복된 실패로 인한 둔감화, 실패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며 합리화하기 등의 전략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떨어지고 나서) 내가 뭐가 문제인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 현실도피라고 해야 되나요? 분석도 안하고 싶어지는.. 거의 자포자기 상태로..” (참여자 8)

“친구 중에 같이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친구도 같은 곳에 썼는데 떨어졌다 얘기하면은.. 막 엄청 우울하게 그러기 보다는 마음에 안심..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참여자 4)

“처음에는 불합격 보고서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근데 몇 번 떨어져 보니까 이젠 아무렇지도 않아요.” (참여자 13)

“나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계속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 돼도 어차피 연봉도 낮고 거리가 멀 수 있으니까. 안 돼도 괜찮아, 라고.” (참여자 12)

범주 5. 이행을 준비하며 기존 자원과 여건상에 새로운 어려움이 발생함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직장 이행과정 중에 자신이 지닌 시간, 돈, 체력 등의 자원과 생활 여건상에 한계를 경험하면서 기존에는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어려움이 발생함을 보고하였다. 특히 이 시기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지도 동시에 완전히 의존하지도 못하는 중간에 낀 시기로 경험되면서, 경제적 의존과 독립 사이에 갈등과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하

였으며, 기존의 또래 관계에서도 자원 부족으로 인한 관계 유지의 어려움, 경쟁과 비교로 인한 불편감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면서 버거움이 생겨났으며, 과도한 스트레스로 건강상의 문제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 1. 경제적인 면에서 스트레스 생김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대학-직장 이행 과정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보였다. 대학 교육과는 별도로 취업을 위해 자격증 취득, 대외 활동 등에 참여하면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부모님의 지원은 결과적으로 취업 성공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또한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아르바이트가 실질적인 취업 준비 시간을 빼는 다든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한 준비들이 오히려 경제적인 압박을 주는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 이해되지 않음을 호소하였다.

“취업 준비에 드는 비용 때문에 알바를 하게 되면 결국 채용준비 기간이 더 오래 걸리고.. 지원을 듬뿍 듬뿍 받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좀 힘든 거 같아요.” (참여자 9)

“취업 관련된 돈은 죄송하긴 하지만 요구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연애를 한다거나 친구를 만난다거나, 그런 것까지 달라고 하기는 좀 그런 거예요.” (참여자 2)

“요즘 압박감이 좀 많이 생겼어요. 부모님은 하루하루 더 나이가 들어 보이시고.. 그래서 내 밥벌이를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참여자 11)

주제 2. 관계에서 어려움 경험

대학-직장 이행을 준비하며 경험하는 뚜렷한 변화 중 하나는 또래 관계의 질과 양의 변화로 보고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서 또래 관계는 동반자이자 즐거움의 대상에서 경쟁자이자 비교의 대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또래를 대하는 이러한 자신의 심리상태나 행동에 대해서 되도록 모른 척 하고 숨기고 싶어 하는 마음도 함께 나타났다.

“만나면서도 내가 이 시간에 하나라도 더 써서 낼 수 있는데.. 이런 거.. 또 정신적으로 힘든데 같이 만났을 때 나만 우울해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좋은 척 해줘야 하고..” (참여자 13)

“특히 막 취업한 친구네 애매하게 친한 경우는 아예 연락을 안 하죠. 취업 성공한 애들을 만나기가 좀 그런 거 같아요.” (참여자 2)

주제 3. 동시에 해야 하는 일이 많아짐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현재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준비생이라는 역할로 인해 대학교육과 생활을 충분히 영위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정체성에 혼란감을 보고하였다. 특히 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경우, 한정된 자원으로 학업과 취업 준비를 동시에 하면서 느끼는 버거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학기에는 사실 최소학점 들고 취업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4학년도 대학생인데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되니..” (참여자 9)

“자소서 쓰는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10개를 지원하면 한 개에 한 3000자씩 쓰

는데..” (참여자 6)

주제 4. 건강상의 문제 발생함

가장 낮은 빈도로 보고되긴 하였으나, 건강상의 문제 또한 명확한 스트레스 반응으로 보고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직장 이행과정 중에 내·외적 소진을 경험하면서 전에 없던 불면, 탈모, 소화불량, 체력저하 등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 또한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소서 쓰면서 한 달 동안 8kg이 빠졌거든요. 계속 컴퓨터 앞에서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하는데 그 스트레스 때문..” (참여자 14)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성인도래기의 청년들이 대학에서 직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개인 내·외적으로 어떠한 주관적 경험을 하는지 질적 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이들의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및 의의를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직장으로의 이행이 필요한 시기임을 인식하고 이행과업을 헤쳐나가기 위한 반응 경험을 가장 높은 빈도로 진술하였다. 즉, 참여 대학생들은 현재와 미래에 대해 희망과 기대감을 바탕으로 내·외적 자원을 활용하여 직장으로의 이행과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성장해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진로이론들은 예측하기 어려운 직업 환

경과 취업난 속에서 개인의 심리적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Côté, 2002; Savickas, 2013). 즉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직업에 관심을 갖고,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려는 시도를 통해 직업 세계로의 성공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직장 이행과업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반응들은 사회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를 극복해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연구 참여자들 경험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행과업을 헤쳐 나가고자 하는 반응의 유무는 개인의 기질적 차이에서 근거하기 보다는, 대학-직장 이행과정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의 차이로 보인다. 참여자 3의 경우 첫 번째 심층면담에서는 자신의 강점을 낙관적 성향으로 설명하였는데, 추가 면담에서 그동안 여러 번의 실패 경험을 통해 대학-직장 이행과업을 삶의 위기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며, 이후 좌절과 무기력을 경험하고 있음을 호소하였다. 즉, 참여자 3은 경우 이행과정 초기 단계에서는 이를 누구나 경험하는 도전과제로 인식하고 결과에 대한 희망을 바탕으로 이행 과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지만, 이후 이행과업에 대한 인식이 삶의 위기로 바뀌게 되면서 이를 헤쳐 나가고자 하는 반응을 지속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이행과업을 헤쳐 나가고자 하는 적극적인 반응은 이행과업에 대한 스트레스의 지각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예를 들어, 대학-직장 이행을 준비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참여자 1의 경우 비록 스트레스를 받고 있긴 했지만 대체로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며 이행과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장으로서의 이행을 준비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실패 경험이 많은 참여자 6의 경우는 스트레스에 압도되어 이행과업에 대해 무기력한 태도를 경험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시기에는 보편적으로 자아실현과 정체성 찾기, 독립성 획득 등의 긍정적 경험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나 불안 등 부정적 경험도 함께 하게 된다(Arnett, 2007).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경험은 그 수준이 지나치게 과하지 않다면 동기부여의 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이 선행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었다(김명옥, 박영숙, 2012; 박미진 등, 2009; 이현주, 2014). 즉, 이행과정 중 겪는 스트레스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일 때, 개인은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현실감을 유지하면서 이를 하나의 도전과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는 과업을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실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해보면 대학-직장 이행과정에서의 성취와 좌절 경험은 이행 과업에 대한 인식과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쳐 이행과업을 헤쳐 나가고자 하는 반응을 촉발할 수도, 반대로 저해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상담자는 대학생 내담자가 이행과업을 헤쳐 나가고자 하는 반응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을 때, 행동의 동기와 의지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거 경험을 탐색하고, 내·외적 자원의 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스트레스, 불안 등과 같은 부정적 경험 또한 기능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직장 이행과정에서 심각한 수준의 내적 고통을 경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대로 적절한 수준의 난관은 행동의 동력이나 기폭제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깊은 심적 고통은 이들이 새로운 삶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선행 연구들에서도 대학생들이 졸업에 다가가면서 경험하는 강한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고, 일에 대한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를 갖게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Graham & McKenzie, 1995; Wood, 2004), 다음 발달 단계로의 이행 실패나 기대에 대한 좌절로 귀결될 수 있다고 하였다(Winefield, Tiggemann, & Winefield, 1991).

특히 연구 참여자들은 구체적인 구직 활동의 단계로 들어서면서 서류 심사 및 면접 등에서 탈락하는 등 거절과 실패를 반복하는 구직 과정을 겪으며, 불안, 위축, 부담, 좌절, 갈등, 무가치함, 걱정, 두려움 등 수많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위기에 취약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목표와 가치관을 포기하거나 타협하고, 자기 자신을 포장해야 하는 경험을 하면서 내적으로 갈등하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다양한 고민과 어려움을 누군가의 도움 없이 홀로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즉, 대학생들은 치열한 취업 경쟁 속에서 자신의 정서를 타당화 할 겨를도 없이 계속되는 체찍질만으로 이행 과정을 버텨나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참여자 12번의 경우 참여자 중 가장 밝고 활발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행을 준비하며 자살을 생각해볼 정도로 불안정한 정서 상태를 경험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내적 고통은 개인의 삶을 극단적인 위기로 몰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는 대학생들에게 이행과업에 대한 책임감과

의지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힘든 것을 꺼내고 나눌 수 있도록 장려하는 과정도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상담 장면에서는 내담자가 대학-직장 이행과정에서 경험하는 내적 고통과 관련하여 이를 보다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자기 수용과 정서 인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는 취업 준비생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심적 어려움의 주요 원인이 ‘반복된 취업 노력의 실패’로 확인된 바 있다(김효정, 김봉환, 2011).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내적 고통은 성공 경험을 통해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참여자 11번의 경우 첫 번째 심층면담 당시 반복된 실패로 굉장히 지치고 무기력해 보였으나, 추가 면담에서는 그 동안 합격 소식을 통해 이행과업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의 기회 구조가 너무 빈약한 경우,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자 11번과 같이 성공경험을 통해 내적 고통을 회복할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기회 구조의 문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활기의 저하를 가져오고, 개인이 실패를 극복하지 못한 채 더 큰 불안과 무기력에 빠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청년들이 다음 기회를 기약하고 다시금 활기를 찾기 위해서는 다음으로 언급될 사회지원과 채용 시스템의 합리적인 변화가 함께 도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범주는 이행과정에서 사회지원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는 경험으로,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는 대학-직장 이행과정에서 채용 시스템과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불편과 불만을 보고하였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대학생이 경험하는 이러한 진로장벽이

이후 진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김영경, 2008; 유미정, 2008; Luzzo & Jenkins-Smith, 1996; Vilacruz, 2003). 나아가 진로장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진로장벽 그 자체보다는 개인이 이를 어떻게 지각하고 받아들이는가와 같은 개인의 주관적 지각이 진로발달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김선중, 2005; Swanson & Gore, 2000).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이 다수 보고하고 있는 사회구조와 지원 문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진로적응 및 발달의 측면에서 중요한 개인 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은 기업 채용 기준의 불명확성에 대해 공통적으로 불만을 토로하였다. 이로 인해 이들은 자신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노력에 대한 의미를 찾기 어려울뿐더러, 실패의 원인을 설명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직종이나 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불필요한 요소까지 준비해야 할 것 같은 신경쇠약에 걸리고 있었다. 결국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하는 이러한 비효율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채용 당사자인 기업의 노력이 무엇보다 전체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은 채용 요건을 직종과 직무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에 따른 채용 과정 또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직장 이행을 가로막는 사회구조적 장벽이 너무 높아 개인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이를 극복하기에는 불가능한 측면도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대학-직장 이행은 대학생 개인의 삶의 과업이기도 하지만, 사회 전체의 성장과 위기와도 맞물려 있다. 즉, 정부, 기업, 대학 등 사회 기관들은 대학생들이 노동시장으로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청년들의 필요와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사회가 제공하는 있는 다양한 지원책들과 청년들의 요구 사이에 명확한 미스매치 현상이 있음이 연구 참여자들을 통해 확인된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bottom-up 방식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범주는 이행과업에 대한 미성숙한 태도 반응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이행과정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몰입하지 못하는 경험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대학-직장 이행은 통과해야 하는 하나의 과업일 뿐, 이 과업이 개인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의미부여는 나타나지 않았다. 개인의 진로발달과 적응에 있어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발견하는 것이 중요함은 선행연구들을 통해서도 밝혀진 바 있지만(송은정, 1999; 조은혜, 이동귀, 배병훈, 2012), 여전히 우리 사회는 진로를 생활 유지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정미란, 2006). 따라서 대학생들이 어떠한 방향과 목적의식을 지니고 대학-직장 이행에 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 범주에서는 자신의 흥미와 적성 및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시간에 밀려서 또는 남을 따라서 이행 과정에 뛰어드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참여자 4번의 경우 마케팅 직무에 관심이 있다고 말하였으나, 경험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직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지 못한 채 현실 타협의 대안으로 마케팅 직무를 생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구체적인 수행의 부재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처럼 이행과업에 대한 낮은 동기 수준은 미성숙한 반응의 주요 원인일 뿐만 아니라, 이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수많은 도전 과제들을 수행함에 있어 소진과 무기력을 피하기 힘들게 만든다. 나아가 이행에의 동기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입사를 하는 것은 직업 적응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의 주요 요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문은미, 이주희, 2016). 즉, 연구 참여자들에게서 나타난 ‘취업만이 능사’라는 태도는 실제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이후 적응에 있어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의 진로 교육과 상담의 방향은 대학-직장 이행이 개인에게 어떠한 의미와 목적을 지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답을 찾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한 자율성과 주체성 함양은 이후 성인기의 진로 적응 및 발달 차원에서 매우 가치 있는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이행 실패에 따른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서적·인지적 회피 반응을 보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회피 대처는 긴장을 줄이고자 하는 일련의 행동으로, 스트레스 상황이 개인의 범주를 넘어선 문제일 경우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수자, 이은희, 2006; 박재숙, 2011). 특히 회피 대처 반응은 심리사회적 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회피 대처 반응을 많이 보이는 대학생일수록 부정적인 정신건강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류진아, 2009; 정재훈, 2014, 최미경, 조용래, 2005). 다행스럽게도 연구 참여자들 중 회피 대처 반응을 보인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이행 과업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더불어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회피 방식을 동시에 사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참여자는 문제를 피하고 축소하려는 회피 중심의 행동만을 나타내었으며, 이들에게서는 이행 과정에서의 근본적인 위기 극복이 어렵게 느껴졌다. 특히 회피 대처가 개인의 범주를 넘어선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용되는 경향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의 위기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 공동의 대응과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대학생의 경우, 결과적으로 사회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상담 장면에서는 대처 방식에 대한 개입에 있어 회피 대처의 활용도를 낮추고 문제중심 대처 전략으로 전환해갈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최태은, 이유리; 2015).

마지막 범주는 이행을 준비하며 기존 자원과 여건상에 새로운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험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경제적 지원, 관계의 문제, 역할 부담, 건강 이상 등의 영역에서 기존에 자신이 지닌 자원과 일상생활 여건상의 한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의 정서적 또는 재정적 지원이나 또래 자원은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적응을 촉진 시켜주는 근접한 맥락변인으로, 상담에 있어 개입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중요하다(Lent & Brown, 2008).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직장으로의 이행을 시도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모의 지원에 오히려 부담을 느끼고 빨리 성인됨에 진입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관계에서도 전에 없던 위축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는 기대에 대한 부담과 비교로 인한 불안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행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관계에서 위축되고 고립되는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

었다.

경제적인 영역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대학 및 정부 차원의 지원 중 장학금 또는 활동 지원금과 같은 경제적 지원의 형태가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행을 준비하며 기존의 일상생활 및 대인 관계에 소요되는 비용에 더해서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자기 관리 비용 등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었다. 특히 대학 생활과 취업 준비를 병행하며, 아르바이트까지 무리하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필수적이거나, 이 또한 실패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에 참여자 2는 일상생활과 대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친구, 연인 등의 관계를 포기하고 있었으며, 참여자 9는 일일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용돈을 버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사회는 대학생이 도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원 부족의 어려움은 시간과 체력 등의 영역에서도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채용 시즌 동안 수십 개의 지원서를 준비하며 각각의 기업이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과정에서 불면증, 탈모, 소화불량, 체중변화, 체력 감소 등의 건강상의 문제도 경험하고 있었다. 선행 연구에서도 진로 문제에서 정서나 인지는 강조되어 왔으나 신체적 고통에 대해서는 간과해 온 측면을 강조하며, 진로 상담에서 신체건강과 고통완화를 위한 보건건강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논의된 바 있다(박미진 등, 2009). 따라서 상담자는 이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대학생 내담자를 상담할 때 정서적, 인지

적 영역 외에 신체 건강상의 이슈에도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스트레스 관리 및 긴장 완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청년 실업이 점차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대학-직장 이행이라는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인 문제를 주제로 하여,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 대학생들이 이 과정에서 개인 공통적으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이들의 목소리와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가 시기의 대학생들은 개인의 기질이나 성향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행 과정에서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하고 내적 고통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대학생들이 졸업에 다가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더 큰 독립성과 익숙하지 않은 책임감, 새로운 사회정체감 형성을 위해 겪게 되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인 것이다(Perrone & Vickers, 2003; Wood, 2004). 그러나 최근의 대학생들은 경기 침체와 고용 악화라는 악재 속에서 졸업을 맞이하고 있어, 이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점은 이행 과정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몰입되지 못하는 미성숙한 반응의 진술문 보다는 내·외적 자원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이행 과업을 헤쳐 나가는 반응의 진술문이 현저히 높은 빈도로 나타남으로써 한국 대학생들이 대학-직장 이행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동시에 부정적 정서와 태도의 심화, 사회구조적 문제와 지원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등으로 인해 대학-직장 이행이 삶의 가치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 아닌 취업 자체가 목적이 되어가는 주객전도 현상도 나타나고 있었다.

분석결과로 나타난 이와 같은 다양한 주제들은 한 개인 안에서 상호작용하여 일어나는 역동적 현상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이들은 직장으로서의 이행 과정에서 환경으로부터 정서적,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받으며 스스로를 성인이 아니라고 지각하면서도, 이러한 지원을 받는 상황에 대해서 위축을 경험하고 빨리 취업을 통해 성인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은 스스로를 청소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나, 충분히 성인이 되었다고도 느끼지 않는 긴 시기로서의 고립과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이들은 청소년기의 미성숙한 태도와 성인기의 적극적 대처가 한 개인의 경험 안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거의 모든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이행과업에 참여하며 다양한 준비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그 이면에는 뚜렷한 동기의 형성 없이 일단 취업하고 보자, 라는 태도 또한 내재해 있었다.

특히 한국 대학생들은 대학입시라는 과중한 스트레스 속에서 자신의 흥미나 적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하는 경험이 부족하여(남윤희, 2007; 차정은, 김아영, 이은경, 김봉환, 2007), 선진 외국의 대학생에 비해 진로의식 발달 수준이 낮고 직업 선택의 폭이 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윤명희, 유형숙, 2010). 특히 한국 대학생들은 3, 4학년이 되어야 진로를 결정하고, 고학년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는 등 자신의 진로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이대용, 류동희, 김인환, 고태용, 2011). 이러한 현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대학생들이 시간을 두고 진로를 탐색하고 구직을 준비하기 보다는 취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떠밀리듯 수행하는 과제처럼 임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본 연구에서 나타난 현상과 같이 일단 취업하고 보자는 태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성인도래기의 대학-직장 이행과정의 주제에 접근함에 있어 기존의 경제적, 정책적 접근 외에도 심리적, 교육적 접근이 통합되어 보다 다각적인 개입 방안 체계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 2학년 때부터 자신의 진로에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여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진로교육일 것이다. 특히 진로정체감과 진로통찰력은 대학생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적성과 조건에 맞는 곳에 취업하기 위한 구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확인되었다(김진희, 2015). 즉, 진로교육을 통해 자신의 흥미, 성격, 재능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희망 직업 분야에 종사하기 위해 어떤 목표와 적성, 가치관이 요구되는지 명확한 이미지를 갖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려움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는 대학생의 진로발달이 탐색과 구체화, 결정과 실행이라는 단계적 준비가 필요한 과정을 인식하고 학년별 또는 발달수준별로 단계적인 진로교육프로그램 또는 상담적 개입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들의 대학-직장 이행 능력을 ‘취업 상태’로 보는 관점에서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 자원’으로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즉, 급변하고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성공적인 대학-직장 이행을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도 잘 이겨내는’이라

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 자체에 대한 대처능력이 필요한 것이다(유현실, 2013).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지만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대학-직장 이행과정에서 부정적인 정서경험, 장벽 인식, 자원부족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즉, 대학-직장 이행과정은 기본적으로 '역경 상황의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참여자는 역경 상황에서도 무력하기 보다는 이행 과정에 관여하고 몰입하는 반면, 어떤 참여자는 좌절과 절망, 무기력함에 사회적 부적응 및 문제 행동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진로와 관련하여 역경이 닦혔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응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인 진로탄력성(career resilience)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Noe, Noe, & Bachhuber, 1990). 진로탄력성은 진로적응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내·외적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고 이에 유연하게 적응하도록 도움을 주는 자원이다(London, 1997). 특히 진로탄력성에는 적극적인 이행 행동을 촉진시키는 자율성, 통제감, 주도성, 위험감수 경향 등을 포함하고 있고, 나아가 이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경험을 보다 유연하게 받아들이도록 돕는 낮은 실패 두려움, 불확실성과 모호함에 대한 인내의 역량을 포함하고 있어(유현실, 2013), 대학생들이 직장으로서의 이행과정에서 경험하는 내·외적 고통을 이겨내고 적극적으로 이행과정에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심리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진로탄력성의 개념을 진로 상담에 적용해보면, 상담자는 대학생들이 대학-직장 이행과정에서 경험하는 위기와 역경에 공감을 제공하고 이를 타당화해주어야 하며, 또한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의 정서를 표현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기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개인이 역경 이전의 기능 상태를 회복하여 이행과정에 적응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청년 실업 문제에 있어서 맥락적 변인들은 문제 발생 이후 뿐만 아니라 발생 이전과 증상 심화 시점까지 포괄하는 예방상담학적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적합하다고 여겨지고 있다(이아라 등, 2013). 비록 대학생들은 대학-직장 이행을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 없는 개인이 적용하고 대처해야 할 과업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적응을 촉진시켜주는 근접한 맥락 변인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Lent & Brown, 2008). 이러한 맥락적 변인들에는 가족의 정서적 또는 재정적 지원 뿐만 아니라 대학 기관의 교육과 상담적 지원과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대학의 진로상담은 개인상담, 집단상담, 각종 프로그램을 통한 진로 지도 등 다양한 방법들이 병행되고 있고 있는데, 상담의 영역에서 진로상담은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주요 문제로 호소하는 경우에도 내재된 심리상담적 개입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많다(김봉환, 2008). 따라서 진로상담자는 대학-직장 이행과정에서 역경을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자아정체감 확립, 정보 탐색, 동기 향상, 의사 결정, 정서 조절 등 다양한 내용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성별, 지역, 전공 등이 고루 포함될 수 있는 이론적 표본 추출을 통해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지만, 본 연구만으로 대학생들의 대학-직장 이행 과정에서의 경험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자들은 연구 현상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나 믿음, 편견 등을 미리 괄호 치기 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연구 참여들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경험들을 충분히 있는 그대로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경험을 여러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성인도래기의 직장으로서의 이행 과정을 분석하였으나, 실제로 대학에 가지 않았으면서, 혹은 더 이상 대학생 신분이 아니면서 성인도래기의 발달적 특징을 보이는 20대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성인도래기 전체를 다루기에는 연구 대상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들이 이행 과정에서 겪는 경험은 아직 학교라는 울타리 안을 벗어나지 않은 대학생들이 겪는 경험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추후 연구를 통해 독립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지니는 학문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의 양적연구에서 논의된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각종 내·외적 어려움이나 대처방식들을 대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나아가 기존의 연구들에서 강조되어왔던 부정적 정서경험에 대해서도 개인 내적 갈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홀로 견뎌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정서를 보다 심도 있게 포착할 수 있었다. 즉, 양적연구에서 우울, 불안, 또는 스트레스로 단순화되었던 각종 심리적 어려움들에 대해 보다 다양하고 세부적인 현상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개입에서도 보다 섬세하고 다각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대학생들이 겪는 내적 고통뿐만 아니라 이행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적 어려움들의 존재를 새롭게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즉, 이 시기에는 취업에 대한 불확실함과 그로 인한 정서적 고통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경제적, 관계적, 건강상의 다양한 어려움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심리학 연구들에서 미진했던 부분인 사회지원에 대한 인식을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회는 대학-직장 이행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문제의 기저에 이를 유발하는 사회구조와 지원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다양한 사회 기관이 협력하여 현안해 다가가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적응적인 대학-직장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개입과 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우선 한국 청년들이 경험하는 대학-직장 이행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심층적 이해는 청년들의 니즈와 정책 간의 미스매치는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가 이 시기에 요구되는 자원과 지원에 대한 교육적, 경제적, 정책적 대책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수요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대학, 지역사회, 정부, 기업 등 다양한 사회 기관들이 대학-직장 이행과정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폭을 넓혀, 이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나아가 교육 및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대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예측하고, 이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상담 전략과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대학-직장 이행과정에서의 긍정적, 부정적 경험의 원인과 결과를 확인하

는 경험적 연구를 통해 개입의 영역과 방법이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적응적인 대학-직장 이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와 프로그램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들 또한 본 연구 주제의 연속선상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성인도래기의 주관적 경험이 청소년기, 성인기와는 구분되는 맥락적, 발달적 특수성이 있음에 주목하여, 이 시기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앞으로 더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경제협력개발기구 (2016). 2016년 OECD 교육지표. http://www.oecd-ilibrary.org/education/education-at-a-glance-2016_eag-2016-en 에서 검색.
- 고용노동부 (2015). 청년 고용질벽 해소 종합 대책.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57425&bbs_cd_n=81 에서 검색.
- 고혜원 (2013). 대졸 청년층의 취업실태: 전공-직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3(1), 641-650.
- 공수자, 이은희 (2006). 여자대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1), 21-40.
- 권혜자, 김두순, 이주현 (2008). 청년층 고용문제와 정책과제.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금재호 (2007).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및 대책. 사회과학논총, 9, 27-54.
- 김두환 (2017). 한국교육에 대한 국외의 긍정평가와 국내의 부정평가에 대한 고찰. 사회사상과 문화, 20(1), 291-328.
- 김명옥, 박영숙 (2012).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취업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9(11), 69-90.
- 김봉환 (2008). 진로상담: 국가경쟁력 향상과 진로 및 직업상담의 과제. 상담학 연구, 9(4), 1685-1702.
- 김선중 (2005).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경 (2008). 대학 신입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1191-1210.
- 김은정 (2014). 20대 청년층의 새로운 생애발달 단계로서 “성인모색기”(Emerging Adulthood)에 관한 탐색 연구. 담론 201, 17(3), 83-129.
- 김진희 (2015). 진로정체성, 진로통창력과 진로탄력성이 대학생의 취업 의지에 미치는 효과. 직업과 고용서비스 연구, 10(1), 47-56.
- 김효정, 김봉환 (2011). 청년구직자들이 진로결정과정에서 겪는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적 사례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785-810.
- 남기곤 (2009). 청년층 미취업자 특성에 관한 분석. 산업노동연구, 15(2), 99-125.
- 남미자 (2013). 초원을 달릴 수 없는 경주마: 대학생들의 취업에 관한 내러티브. 교육인류학연구, 16(2), 155-192.
- 남윤희 (2007). 2007년 신입생실태조사 분석. 학생생활연구, 30, 1-40.
- 류진아 (2009).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대처방식에 대한 질적(CQR)연구. 청소년학연구,

- 16(6), 45-70.
- 문은미, 이주희 (2016). 사회초년생이 직업적응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3), 743-775.
- 박미진, 김진희, 정민선 (2009). 취업준비 대학생의 스트레스에 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10(1), 417-435.
- 박성재, 반정호 (2006). 대졸 청년층 취업준비 노력의 실태와 성과. *한국인구학*, 29(3), 29-50.
- 박승민 (2012). 상담학 분야의 질적연구 경향 분석. *상담학연구*, 13(2), 953-977.
- 박재숙 (2011). 농어촌 청소년의 진로위기가 우울 및 회피적 대처를 통해 인터넷 과다 사용에 미치는 직, 간접적 영향. *청소년학연구*, 18(8), 21-43.
- 박종태, 조현수 (2009). 한국 청년실업률의 지역별 비교 분석연구. *한국지역경제연구*, 14, 87-104.
- 송은정 (1999). 자아개념과 삶의 의미수준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4).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출판부.
- 신현규, 장재윤 (2003). 대학 4학년생의 성격특성과 성별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815-827.
- 안선영, 김희진, 박현준, 김태령 (201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 총괄 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3-17.
- 유미정 (2008).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현실 (2013). 진로탄력성 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성인 진로상담에 대한 시사점. *상담학연구*, 14(1), 423-439.
- 윤명희, 유형숙 (2010). 한일 관광관련학과 대학생의 희망직업-전공 간 일치여부 및 취업준비행동 비교. *일본근대학연구*, 27, 203-216.
- 이대용, 류동희, 김인환, 고태용 (2011). 한국대 학생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취업진로연구*, 1(2), 41-68.
- 이아라, 이주영, 김계현 (2013). 예방상담학적 관점에서의 국내 청년실업 연구동향과 개입방안. *상담학연구*, 14(1), 115-141.
- 이현성 (2010). 가계 소득이 젊은이의 실업기간에 미치는 영향. *경제연구*, 31(2), 47-84.
- 이현주 (2014).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요인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기격려의 조절효과. *교육문제연구*, 53, 1-25.
- 이필남 (2014). 고졸취업 확대 정책 전후 고졸 취업자 일자리의 질 비교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3(4), 49-74.
- 이훈구, 김인경, 박윤창. (2000). 경제불황이 20대 미취업 실업자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6(2), 87-101.
- 정미란 (2006).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삶의 의미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학생생활연구*, 28, 63-93.
- 정재훈 (2014). 우울, 회피 대처, 생존 및 대처신념과 자기 자비가 자살생각과 자살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영하, 김병찬, 김봉준 (2008). 대학졸업자의 취업성공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6(2), 437-462.
- 조은혜, 이동귀, 배병훈 (2012). 삶의 의미추구

- 와 의미발견 과정에 따른 진로성숙도: 긍정 정서와 긍정적 재해석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 연구*, 13(5), 2049-2065.
- 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2010). *질적 연구방법론 - 다섯 가지 접근 -*. 서울: 학지사.
- 주경필 (2015). 성인도래기(Emerging Adulthood)의 개념정립을 통한 국내 청년복지정책에 대한 소고(小考). *청소년복지연구*, 17(1), 189-213.
- 차정은, 김아영, 이은경, 김봉환 (2007).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및 진로미결정의 성별 차이 및 발달 경향성 검증. *교육심리연구*, 12(40), 923-944.
- 채구목 (2004). 청년실업과 신규대졸자 실업의 실태, 원인분석 및 과제. *한국사회복지학*, 56(3), 159-181.
- 최미경, 조용래 (2005). 생활 스트레스와 지각된 불안 통제감 및 대처양식이 대학생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281-298.
- 최진영, 이광호 (2012). 대학생의 진로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9(9), 189-213.
- 최태은, 이유리 (2015). 대학생생활스트레스, 회피대처, 정신건강의 구조적 관계와 성별에 따른 잠재평균분석. *미래사회복지연구*, 6(2), 63-88.
- 통계청 (2017).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B#SubCont.
- 한국청년연합 (2015). *대학 내 취업지원관·대학청년고용센터 만족도 조사*.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810062>.
- 황여정, 백병부 (2008).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11(2), 1-23.
- Amirkhan, J. H. (1990). A factor analytically derived measure of coping: The coping strategy indicat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5), 1066-1074.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 Arnett, J. J. (2007). Emerging adulthood: What is it, and what is it good for?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1(2), 68-73.
- Arnett, J. J. (2014). *Emerging adulthood: The winding road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2nd ed.). NY: Oxford University Press.
- Côté, J. E. (2000). *Arrested adulthood: The changing nature of maturity and identity*. NY: NYU Press.
- Côté, J. E. (2002). The role of identity capital in the transition to adulthood: The individualization thesis examined. *Journal of Youth Studies*, 5(2), 117-134.
- Ellis, C., & Bochner, A. P. (2000). Autoethnography, personal narrative, reflexivity: Researcher as subject. In N. Denzin & Y. S.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CA: Sage Publications.
- Erikson, E.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Y: Norton.
- Graham, C., & McKenzie, A. (1995). Delivering the promise: The transition from higher education to work. *Education Training*, 37(1), 4-11.

- Hartley, J. F. (1980). The impact of unemployment upon the self esteem of managers.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53(2), 147-155.
- Hettich, P. I. (2010). College-to-workplace transitions: Becoming a freshman again. In T. W. Miller (Ed.), *Handbook of stressful transitions across the lifespan* (pp. 87-109). NY: Springer.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Lent, R. W., & Brown, S. D. (2008).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and subjective well-being in the context of work.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1), 6-21.
- London, M. (1997). Overcoming career barriers: A model of cognitive and emotional processes for realistic appraisal and constructive coping.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4(1), 25-38.
- Luzzo, D., & Jenkins-Smith, A. (1996). Perceived occupational barriers among Mexican-American college students. *TCA-Journal*, 24(1), 1-8.
- Monteiro, A. M., Santos, P. J., & Gonçalves, C. M. (2015). Building a scale of the meanings of transition from higher education to work.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3(3), 481-492.
- Noe, R. A., Noe, A. W., & Bachhuber, J. A. (1990). An investigation of the correlates of career motiv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7(3), 340-356.
- Perrone, L., & Vickers, M. H. (2003). Life after graduation as a “very uncomfortable world”: An Australian case study. *Education+ Training*, 45(2), 69-78.
- Polkinghorne, D. E. (1989).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In R. S. Valle & S. Halling (Ed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perspectives in psychology* (pp. 41-60). New York: Plenum.
- Savickas, M. L. (2013). Career construction theory and practice. In S. D. Brown & R. W. Lent (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2nd ed., pp. 147-183). NJ: John Wiley & Sons.
- Swanson, J. L., & Gore, P. A. (2000). Advances in vocational psychology theory and research. In S. D. Brown & R. W. Lent (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3rd ed., pp. 233-269).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Van Kaam, A. (1969). *Existential foundations of psychology*. NY: Doubleday.
- VilaCruz, G. G. (2003). *Barrier perceptions, coping efficacy, and other career-related factors within a community college population: A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perspectiv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Winefield, A. H., Tiggemann, M., & Winefield, H. R. (1991). The psychological impact of unemployment and unsatisfactory employment in young men and women: Longitudinal and cross sectional data.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82(4), 473-486.
- Wood, F. B. (2004). Preventing postparchment depression: A model of career counseling for college seniors. *Journal of Employment Counseling*, 41(2), 71-79.

원 고 접 수 일 : 2017. 08. 16
수정원고접수일 : 2017. 09. 21
게 재 결 정 일 : 2017. 12. 06

A Phenomenological Analysis on the College to Work Transition Experience of Emerging Adults

Ji Geun Kim Kyung min Heo Dayon Heo Ki-Hak Lee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emerging adults experience the college to work transition. In-depth interviews were carried out with 15 undergraduates selected by theoretical sampling, and data was analyzed utilizing the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of Van Kaam (1969). As a result, 1125 significant statements, 61 subthemes, 19 themes, and 5 categories were constructed. The five categories, listed in order of highest frequency, are as follows: recognize the transition and get through it, inner suffering due to the negative experience, unfulfilled needs for social support, Maladaptive reaction to the transition, and new difficulties in terms of resource and circumstanc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emerging adults have mixed experiences during the transition as evidenced by their utilization of various coping strategies, varying negative emotions and attitudes, fluctuating social structure difficulties, and inconsistent levels of hopefulness and desire to grow.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emerging adulthood, college to work transition, phenomenological research*